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공개 경쟁입찰 와중에 광주 북구의회 수상한 행정조사

1월 입찰경쟁 결정했는데 입찰공고 이후 발의 '부적절' "입찰에 영향력 행사" 의혹

광주시 북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에 대해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북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치구 의원들이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이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 북구의회와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북구의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됐다. 이 발의안은 북구의회 기대의원들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발의안이 11일 시작되는 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기 의원은 북구 청소행정과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조사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이 추진중인 시점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의안에 찬성한 한 의원이 감사로 재직하던 적이 있던 모 업체가 입찰 설명회에 참석, 입찰 참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의혹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북구는 30여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한 업체와 특정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18년 말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거버넌스'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변호사·감정평가사·회계사·노무사·북구청 관계자·구의원·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지난해 3월까지 6차례 회의를 거쳐 27건의 권고안을 북구에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권역을 분리해 광주시환경경단에 맡겨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거버넌스의 권고안에 따라 북구는 지난 1월31일 대행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참여조건·제안서 작성·대행사업 기간·평가표 항목 및 배점표 등을 공개하는 사전 설명회를 가졌으며, 여기에 5개 업체가 참석했다. 지난 4월 29일 공고가 시작된 공개 경쟁 입찰은 오는 6월 9일 제안서 접수를

거쳐 6월 10일 적격 사업자가 선정된다.

북구가 구청 공무원과 북구 의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거버넌스'가 제시한 권고안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1월말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진행되는 시점에 의회가 행정조사를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행정조사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현행 대행 업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대행 업체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입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정적이 시행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이번 행정조사 발의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조사하는 것이어서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운영방식, 계약 방식, 타 자치구의 계약 방식 등을 고려해 투명성과 안정성 및 예산절감 부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디어아트 입은 광주톨게이트 광주의 관문인 광주톨게이트에 대해 미디어아트 작품 '무등의 빛'이 설치됐다. 광주폴리 IV 관문형 폴린인 '무등의 빛'은 톨게이트 상부에 가로×세로 각각 74m, 8m의 무등산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와 김민국(주)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협업한 영상설치 작품이다. 서울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방면에는 무등산의 사계와 낮과 밤, 광주의 3할(三鄕), 광주의 빛 등 광주다움을 상징하는 총 8분 30초 분량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17시간 상영되며, 광주에서 서울로 나가는 방면에는 스테인리스픽셀 약 1만2000개가 설치된 윈드베일(Wind Veil)을 만날 수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북구, 청년활동 거점 공간 '청춘이랑' 운영

광주시 북구가 젊은층의 문화 트렌드에 맞는 공간을 조성해 미래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북구는 중흥동에 지상 3층(연면적 269.92㎡) 규모의 북구청년센터 '청춘이랑'을 11일부터 운영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1층은 카페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공동판매장, 2층에는 회의실과 공유부엌·북카페, 3층은 소모임 공간과 1인 미디어 제작 공간·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했다.

북구는 청년 역량강화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취업상담, 창업포럼, 일자리 특

강 등 취·창업 프로그램과 청년 강사에게 강의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서로서로학교', 사회초년생 대상 희망 강좌, 마음을 치유하는 청년상담 마음톡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11일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돼 대관 및 프로그램 신청, 청년정책 등 통합정보 서비스도 제공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청년센터가 중흥동 일대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센터가 청년과 함께 꾸무고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코로나19 피해 기업 인건비 지원 추가 모집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 사업 지원기업을 추가모집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아라'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청년고용 확대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구는 지난 1월 금년 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재정난 해소 및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 대상을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총선 당선자 교육공약, 교육의 질·환경 향상에만 쏠림

자치·대입제도 개선은 전무

4·15 총선에 당선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질과 환경, 복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이 뚜렷한 반면 민주시민교육이나 교육자치,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정보원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21대 총선 전남 10개 지역구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을 ▲교육자치 확대 및 지방

분권 ▲대입제도 개선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 ▲교육복지 ▲아동보호 및 안전 대책 등 9개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이슈페이퍼 2020년 제1호·이하 보고서) 이 같이 조사됐다.

특히 전남지역 수험생의 90% 이상이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는 공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도시 집중 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공

약은 사실상 전무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강화나 교육자치와 분권, 아동보호와 학교폭력, 안전대책 등 전남교육청이 제안한 20대 공약 중 상당수도 총선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핵심공약 역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나 의과대학 설립,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시설 유치나 설립에 치우친 반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설명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전남교육청 13~27일 5·18 40주년 주간 학교 자율 기념행사... 민주시민교육 강화

전남교육청이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전개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3~27일 5·18 4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로 자율적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기념행사의 슬로건을 '5월 민주정신 40년! 참여·나눔·연대로 이어가겠습니다'로 정하고, 전남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청사 1층 중앙 현관 로비에 '그날을 기억하다'는 공간을 설치

해 5·18 영화 포스터와 도서, 사진 등을 전시하고, 5·18 3분 영화제 공모 영화와 유튜브 공모작을 상영할 계획이다.

또 전체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희망문구 동영상 캠페인 활동을 SNS에 탑재해 5·18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정착을 기원하고, 5·18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중파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5월18일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먹밥 체험 대신에 지역농산물을 제공하는 참여·나눔·연대 희망가꾸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광주시와 함께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와 함께 12일부터 지역 20만 4000여 유·초·중·고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족꾸러미'를 공급한다.

이번 꾸러미 공급은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장기간 가정돌봄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농가의 피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서·남·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꾸러미 구성과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3만 5000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학교무상급식 예산 72억여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 희생자 큰 인형 금남로 걷는다

16일 '오월시민행진' 행사 페박스·종이로 45개 제작

1980년 5월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당했던 영령들이 40년만에 금남로에 소환된다.

10일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5·18 희생자들의 인형(사진)을 들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 4가 원각사를 왕복하는 '오월시민행진-오월, 그날 WHO'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40년 전 불의에 맞서 항거했던 시민들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들과 오버랩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 이용되는 인형은 폐신문지와 페박스·종이 등을 밀가루 풀로 붙여 45개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얼굴부분은 거의 완성됐으며, 다리는 없이 상반신만을 만들어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45개 인형 중 22개는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나머지 23개의 인형은 오

월 어머니, 청년단체 플라리스, 대한학교 래미·해밀학교 학생들, 신창마을교육공동체 주민 등이 제작중이다.

행사를 준비한 후원경작가는 "5·18을 좀더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농협 조합장 조준성

농업·농촌 발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화순농협!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순농협하나로마트!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을 꿈꾸는 화순농협로컬푸드직매장! 우리의 생명창고 농업·농촌의 지킴이 화순농협! 바로 여러분의 정직한 벗(友)입니다.

감동을 주는 화순농협
상생하는 화순농협
도약하는 화순농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농협 조합장 조준성 외 임직원 일동

화순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에서 지향하는 로컬푸드는,

온가족이 건강한 밥상

화순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로컬푸드로 온가족의 식생활 균형 유지와 더불어 우리 농가소득의 증진을 도모하는 농민과 고객을 모두 생각하는 로컬푸드입니다.



화순농협에서 선보이는 고품질 축산브랜드를 만나보세요! 청정지역에서 자라 더욱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74 대표전화 : 061-374-2356

